

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통합 방제훈련 실시

윤 이선규 기자 | 승인 2025.08.10 14:06

농업용수 수질오염 사고 대비



[충청타임즈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 7일 충주시 신니면 문송리 용당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방제훈련을 실시했다.

이날 훈련은 충북 북부권역 지사(충주제천단양, 진천, 괴산증평, 음성) 통합 방제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상류지점 유조차 전복에 따른 기름 유출 발생과 비점오염원 지속 유입에 따른 녹조 발생을 가정해 각 상황 단계별 △사고 접수 △방제 인력 및 장비 투입 △유류 제거 작업 및 녹조제거제 살포 △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됐다.

전승민 지사장은 "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"며 "앞으로도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@cctimes.kr

저작권자 ©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선규 기자